



공교상지국채 전문

해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 733-3900



새 단장 거조암 5백나한

“지친 삶 어루만지며 정토 염원하신다”

절에는 표정이 있다. 대부분의 절에서는 불보살님들의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과 사천왕들의 험상궂은 표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산전이나 용진전 나한전이 있는 절에서는 나한님들의 다양한 표정을 만나게 된다.

나한님들의 표정, 그것은 절이기 보다는 사골마을 절자나 무 아래서나 노인장의 장기관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들의 표정에 가깝다. 박장대소를 하거나 턱을 관재 사색을 하는 표정, 양볼에 바람을 잔뜩 넣은채 소리를 부는 모습, 혹은 호랑이를 타고 있거나 염주를 늘어뜨리고 열로 비스듬히 앉아 있는 모습, 어느 한 분도 같은 모습과 표정이 없지만 모두가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나한님들은 왜 그렇게 재미있는 표정으로 거기에 계시는 걸까. 경북 영천 거조암에 가면 그 답을 알게된다. 신라때 청화화상이 신룡령을 발휘해 하룻밤 동안 조성했다는 거조암 오백나한.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편안함이다. 존자들의 편안한 자세와 표정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케 해준다. 아라한의 평상심과 중생의 평상심이 틀어 아님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 일깨움이야말로 나한님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거조암은 신라 효성왕2년(738) 원함도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경덕왕때 왕명으로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진경왕 13년 예림법사와 법화화상이 영산전을 건립 5백나한을 봉안함으로써 나한도량으로 이름이 나게됐다.

한때 폐허로 방치됐다가 고려말 명나라의 대목 진촌군에 의해 중창된 거조암 영산전(1375년 국보 제14호)은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10미터의 장방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전 수덕사 대웅전과 더불어 고려시대 목조건축물로서 가치가 높다. 중앙에는 석가여래 삼존불이 그 뒤에는 영산회상단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로 5백26나한이 봉안되어 있다. 화

**박장대소하거나
턱관 채 사색하고
소리를 부는 모습 등
가지각색의 표정
우리가 가야할
진리의 세계
넌지시 보여주는듯**

감암으로 조성된 존상들은 대개 50kg에서 80kg의 무게다. 사람의 몸무게와 비슷한 것인데 높이는 50cm 정도여서 사람의 앉은키 보다는 작다.

이제 거조암(주지 해해)은 우리나라 나한신앙의 새로운 터를 다지고 있다. 6백년이 넘으며 쇠락한 영산전 중창불사의 회향을 앞두고 대규모 나한재를 준비하고 있다. 95년 오백나한의 명호가 적힌 <오백성문정문>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영산전의 중창불사는 11월에 회향된다.

흔치않게 나한을 주제로 모신 도량 거조암이 준비하고 있는 나한재는 이미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불사다. 나한재는 16나한재와 5백나한재로 나뉘어 봉행되지만 큰 차이가 없다. 전통적인 나한재의 절차는 나한을 의식도량으로 청하는 봉



○작년 8월부터 10여만을 투입해 복원중인 거조암 영산전. 나한재대의 설치만 남겨놓은 이 복원공사가 11월 완성되면 7일간의 나한재가 열린다.

청(奉請)과 공양을 권하는 근공(勤供) 그리고 여러 기원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거조암은 영산전 중창의 회향에 맞춰 7일간 재를 올릴 계획이다. 매일 70여분의 나한님을 새로 단장된 영산전으로 이운하며 민발삼중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3중공양이란 쌀과 콩 그리고 동전(지폐)을 올리는 것. 공양과 함께 동참자들은 나한님께 절을 올리며 소원을 빌게 된다.

나한이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한 성자를 줄여 부르는 것이다. 아라한과는 소승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고법이다. 그래서 나한님들은 탈속의 자재함과 신룡령을 지닌 모습으로 표현되며 근엄하거나 엄숙한 보다는 해학적이고 인간적인 경취를 가득 지니게 되었다. 속발의 이상화된 존엄과 인간적인 면모의 조화가 바로 나한상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라한은 다른 이름으로 응공(應供) 응진(應眞) 살적(殺敵) 불생(不生)이라고도 불린다. 응공이란 아라한과를 증득했으니 미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진리에 도달했으니 응진이다. 또 수행의 적인 온갖 번뇌를 다 물리쳤으니 살적이고 해탈하여 다시 태어남이 없으니 불생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한신앙이 발달해진 것은 가시시대부터다. <삼국유사>제2권 가락국기에는 수로왕이 도음을 정할때 "이 땅은 험소하기가 여귀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여 가히 16나한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그 근거다. 나한신앙은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했는데 왕이 직접 나한재를 주관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나한상을 주제로 모시는 사찰도 많았다고 한다.

나한님들은 일반적으로 영산전이나 용진전 나한전에 16나한 18나한 5백나한으로 나누어 봉안된다. 적지사 풍도사 천은사 옥천사 송광사의 16나한상과 경북 영천 거조암 영산전의 오백나한상, 청도 운문사 관주 중심사 오백나한이 유명하다.

불보살님들의 온화한 표정이 우리들의 지친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면 나한님들의 과격적이고 해학적인 표정은 우리가 가야할 진리의 세계를 넌지시 보여주는 무언의 가르침이 아닐까. 웃음 잃어가는 세상, 나한님들의 큰 웃음 소리가 이 세상을 뒤엎을 날은 언제일까. 지극한 마음으로 밀어붙 일이다.



○컴퓨터에 거조암 5백나한의 사진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5백나한 달력에 몸싹고 컴퓨터 통해 세상에 나온다

거조암 5백 나한님들이 세상으로 외출한다. 나한님들은 두 길로 외출을 한다. 한 길은 달력에 몸을 싣고 불자들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한 길은 컴퓨터에 몸을 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거조암은 최근 49분의 나한님을 한장에 담은 12장짜리 98년도 달력을 제작했다. 나한님의 표정에 매료되어 6년간 나한님을 렌즈에 담아 온 오명숙씨의 사진에는 거조암 나한님들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있다. 오씨는 작년부터 일년내내 거조암 5백나한님단을 렌즈에 담아 왔다.

1천6백여 컷의 사진을 인화해 일일이 실물과 대조하는등 어려운 작업을 통해 얻어진 오씨의 사진은 다시 컴퓨터 속으로 들어 갔다. 사진을 스캔 받아 컴퓨터 영상처리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 작업을 진행해 온 한단기회 이승실장님의 말이다. 이 실장은 일차적으로 스캔 작업을 완료했다.

거조암은 각 나한님들에 대한 설명과 나한신앙에 대한 기록들을 전자화해 CD롬을 제작 보급하고 나한님들의 명호 문헌자료들이 수록된 3백여쪽 분량의 화보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분실된 8분의 나한님을 되찾는 일과 95년 영산전에서 발견된 <오백성문정문> (오백나한의 명호가 기록된 책으로 96년에 한글 번역이 완료됐다)의 명호를 바탕으로 나한님들의 이름을 찾아 주는 일은 거조암의 큰 숙제다.

○ 영산전의 5백나한님들과 95년 발견된 <오백성문정문>의 표지와 내용. 나한님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글=이훈호 사진=고영배 기자